

† 마데테스는 체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테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국청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나에게 속아 주소서

신윤식

눈을 감고 신을 찾습니다.
귀를 닫고 신을 찾습니다.
탐욕을 숨기고 교만도 숨기고
아닌 척 위선의 옷 입고
신을 찾습니다.

남보다 나은 천국을 위해
남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신을 부릅니다.

세상에서도 뛰어내고
천국에서도 대접받고 싶습니다.
타인보다 더 아름답고
타인보다 더 사랑받으며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남보다 행복하고
남보다 많이 베풀고 살아가며
선행으로 칭찬 받을 수 있는
우월한 자리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을 던지며 신이 내 편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도 권력도 필요합니다.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신이여! 나의 속을 보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나는 그대의 자식이니
제발 나에게 속아주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8.18

발행호수 제21권 33호

예 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시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33년의 짧은 인생도 따져보면 내노라 할 것이 없습니다. 30년이 될 때까지의 삶은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삶은 겨우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의 기간에 세상이 놀랄 만한 업적을 남겨 놓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낙인찍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오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원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성공을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르침' 이라고 풀이합니다. 즉 단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과 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를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말할 때 우리가 인생에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두고 성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패라고 해야 할까요. 외형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3년의 일생 동안 이루신 것이 전혀 없고 초라하고 힘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 받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본받고 싶어 하고 자신도 같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속마음이 예수님의 인생처럼 되는 것을 꺼려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생을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써 예수님의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셨고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님이

주일오전설교
눅 13:31-35

내 길을 간다

가신 그 길로 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인생을 원한다면 예수님의 인생을 두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이 실제로는 어떤 인생을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해돋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율법의 문제로 그들과 여러 번 충돌을 하였고 책망의 말씀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돋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마치 예수님의 신변을 걱정해주는 아주 우호적인 말로 들립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전부가 예수님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 여기를 떠나라고 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우호적인 사람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닫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 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달갑지 않게 들렸을 것은 당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실천과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떠나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해돋이를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의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는 것이 자신들에게 좋을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렇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계시는 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인정 받고 칭찬 듣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 즐거움이 휘발 받게 된 것입니다. 정결 규례를 지키고 안식일 등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것으로

자기 신앙을 자랑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 곁에서 떠나게 하고 계속 예전의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싶은 속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떠나소서’ 라고 말하는 그 의도는 ‘당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우리가 즐거울 수 있다’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신앙은 자기만족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동행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동행해주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면 나의 일을 도와주실 것이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주면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동행으로 자기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또한 자기만족을 위한 신앙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눅 11:43)라고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 받음에 문안을 받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과 정결 규례를 철저히 지킴으로 그들의 신앙이 뛰어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기만족을 위한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악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기쁨이나 만족은 없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헤롯을 빌미로 여기서 떠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나의 만족이 되지 않는 예수에 대해 마음이 떠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 마음이 떠난 자의 상태로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바리새인들이 우호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했다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생명이 되는 분임을 알았다면 어땠

을까요? 그래도 헤롯이 죽이려 하니 여기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 등의 귀를 자른 것처럼 힘을 모아 헤롯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했어야 할까요?

신앙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 해도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여기서 떠나라’ 고 충고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길에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원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예수님이 가신 길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더 큰 관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한 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2,33절)는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위협이 있다고 해도 내가 갈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죽음에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이 길을 ‘내가 갈 길’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심으로 십자가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케 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엔 입버릇처럼 떠들었던 신앙과 얼마나 떨어진 채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길을 가면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행악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하고 죽였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려 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길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 마음에 맞는 메시지를 영접해서 그 메시자로 인해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등장한 예수님은 그런 그들 마음에 기쁨도 만족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박해하던 예루살렘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것을 알았지만 그 길로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패의 길로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세상이 바뀌고 예루살렘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로만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이고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실패하신 것입니까? 예루살렘과의 싸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애당초 세상과 예루살렘을 바꾸기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기쁨과 만족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의 귀에 이 말은 분노를 일으키는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세상의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세상 현실을 드러내신 것으로 예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되면서 마음을 주께 두는 주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게 되는 사람은 자기

기쁨과 만족이 있는 길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이 길이 우리의 길로 자리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 126편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5,6절일 것입니다. 현재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 십상인 이 구절은 분명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날마다 수고와 고생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현실이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뤄지는가입니다. 과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 세상 현실일까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구조는 아무리 노력해도 없는 자는 여전히 없는 자로 남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와 고생은 있으나 기쁨의 결실은 없는 것이 이 사회의 구조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고생한 것만큼 그 결과를 얻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 것만큼 고생 했으면서도 실패하고 결실이 전혀 없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이 고정된 법칙으로 작용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5,6절의 말씀은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는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이 유다의 포로 시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꾸는 것 같았다’**는 표현이나 **“그 때**

주일오우설교

시 126:1-6

하나님의 큰 일

(130장 7.21일 설교)

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찻 었도다 그 때에 못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2절)는 구절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기쁨을 노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고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이 마치 고생 끝에 낙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눈물의 시절을 참고 견뎌으로써 해방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을 때 일본이 항복하고 해방된 그 날은 온 국민이 기뻐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방의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빈곤의 삶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돌아오게 된 기쁨은 있었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의 상황은 더 이상 기뻐할 수 없게 하였을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2절에서 말하는 웃음과 찬양의 의미가 단지 포로에서 돌아온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못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고 말한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유다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로만 국한한다면 포로 되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포로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다를 포로 되게 하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시편 저자처럼 웃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일까요?

렘 33: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크고 은밀한 일은 33:10절을 보면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여호와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감사하는 소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환경과는 무관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됨으로 맺어지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처럼 환경과 무관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렘 33:8절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는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죄사하심입니다.

유다는 죄 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죄를 몰랐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라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밀어 넣으심으로 죽음이라는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곧 자신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사형수가 아닌 사람에게는 ‘죄를 사한다’ 는 말이 자신과 상관없는 말로 들리지만 사형수에게는 무한한 기쁨의 소리로 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은 자기 백성을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고쳐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일에 담겨 있는 진정한 크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주어진 환경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고자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환경이 비록 눈물을 흘리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6절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왜 울며 씨를 뿌리느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도 예전의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 눈물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렇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의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씨를 뿌리면서 포로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물은 자기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통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의 죄 사함이라는 자비하심을 봄으로써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악함을 깨닫고 자기 죄로 인한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한 죄 사람의 기쁨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3절)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죽음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환경을 가지고 인생을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지고 황폐화 된 예루살렘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비록 환경은 비참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자신들을 기쁨과 즐거움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알게 되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4절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라는 말씀에서 남방은 사막, 광야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남방 시내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뜻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여호와로만 가능한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세계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계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일이 행해지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세계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선 지자에게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일러준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록하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요시아 날부터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요시아 왕 13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1절에서 말한 여호야김 4년까지의 기간은 23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23년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해 말씀한 것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23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하려면 그 양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서 들었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이 전부입니다. 3절에서도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록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를 향한 멸망과 재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은 붙잡혀 있는 몸이어서 여호와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바룩에게 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도 낭독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낭독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의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는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악한 길을 떠나게 하기 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실전이며 행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23년간 말씀하신 것을 모두 기록하게 하시고 낭독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세워서 유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통보하시고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악한 길에서 떠나기는커녕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말씀을 전하

는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23년 동안의 말씀을 기록하여 낭독한다고 해서 새삼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역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기록하여 낭독하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는 유다 가문에 내리고자 하시는 재난이 담겨 있습니다. 즉 유다의 범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은 낭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현재의 모든 재난의 이유도 자신들의 죄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말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포로 되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고초를 겪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해 낭독할 때 유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으며 어떤 악을 행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악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기록하여 낭독하라는 말씀이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유다의 죄의 역사가 되고 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죄의 역사이기도 하고 실상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미워했던 그 모든 죄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유다의 죄만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실천은 다시 말하지만 죄로 인한 애통과 함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보고 봉사하는 것을 말씀의 실천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무시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앙생활에 특출한 열심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무시한 상태에서의 신앙 열심은 결국 자신의 의와 자랑으로 연결될 뿐입니다. 자기 열심을 근거로 해서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만 있을 뿐이기에 신앙으

로 간주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불의를 행하는 것으로 말씀했고 모른다고 부인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평가하자면 죄로 가득하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처럼 크신 은혜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은 애통하는 것과 함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미가야가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서기관방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고관들에게 바룩에게 들은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바룩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바룩이 두루마리를 가져와 낭독하자 놀라며 그 말을 왕에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전합니다.

다시 왕은 여후디라는 사람을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여후디가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과 거기 있는 고관들 앞에서 낭독을 할 때 왕이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버립니다.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는 이것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왕과 신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왜 베어서 태워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나타내는 현실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미리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애당초 말씀의 세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과 신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늘 인간의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원한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 부린다면 우리 앞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찢어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불태웠다고 해서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8절을 보면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은 인간이 배척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세상에 존재하며 자기 백성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장
교 독 : 68(사40장)
기 도 : 이성희 장로
찬 송 : 535장
성 경 : 눅 13:31-35
말 씬 : 내 길을 간다(7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8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2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10장
기 도 : 박상운 집사
찬 송 : 401장
성 경 : 시 130:1-8
말 씬 : 주를 기다리는 마음(13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38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0강)

■ 교회소식 ■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이옥주 집사

이단 ④

흔히 몰몬교라 부르는 이들의 정식명칭은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이지만 현재 이들의 홈페이지의 명칭이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은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여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종 거리에서 정장을 한 젊은 미국인이 왼편 가슴에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라는 명칭과 이름이 표기된 명찰을 부착하고 두 명씩 짝을 지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미국에서 파견된 몰몬교 선교사들이다. 이들은 방학이나 기타의 시간을 이용해 포교차 방한하여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포교하고 있다. 방송에서 자주 얼굴을 보이며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로버트 할리라는 사람도 몰몬교도이다.

몰몬교는 1830년 4월 6일 뉴욕 주 페이엠티에서 조셉 스미스와 그를 추종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조셉 스미스는 1805년에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는 충실한 기독교인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성경에 대해 가르쳤으며 조셉 스미스를 비롯한 열 명의 형제자매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성장했다고 한다.

조셉 스미스가 열네 살이 되었을 무렵 당시 미국은 여러 개신교가 번창하며 많은 신도들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었는데,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신앙에 대해서 진지했던 조셉은 인근 지역에 있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가이할지에 대한 문제로 혼란스러워 했다고 한다. 당시 교회가 자기 교파의 교리를 따라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각기 다른 가르침을 주장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조셉 스미스는 성경을 읽다가 약 1:5절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고 야고보의 가르침대로 해보기로 한 조셉 스미스는 집 근처에 있는 조용한 숲 속으로 가 무릎을 꿇고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후에 18세가 되는 1823년 9월 21일 저녁 잠자리에서 천사 모로나이(몰몬의 아들)의 방문을 3번 받았는데,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고대 미 대륙 백성들의 기록이 담긴 금판에 대해 이야기 하며 조셉이 그 금판의 기록을 번역하여 세상에 전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음을 알렸다는 것이다. 조셉 스미스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 근처의 산에서 땅에 묻혀 있던 금판을 받았으며, 조셉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그 기록을 영어로 번역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몰몬경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이름으로 1830년 3월에 출판하였고, 1830년 4월 6일에 몰몬교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한 후 1831년에는 오키오 주와 미조리 주로 그의 교회를 확장해 나아간다.

이들은 겔 37:15-17절에 나오는 두 개의 막대기가 ‘성경’과 ‘몰몬경’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둘이 하나의 막대기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룬다고 예언되었다고 해석하면서 몰몬경을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참 계시로 부각시킨다. 즉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속죄하신 우리의 구주임을 증거하며,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확증해주며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계시의 책이라는 것이다.